

예 배	일 시	장 소
새벽 기도회	토요일 오전 7시	교육관 7번 교실
주일 예배	주일 오후 1시45분	예배당
주일학교 예배	주일 오후 1시35분	교육관 5번 교실
청년 기도모임	월 1회	교육관 7번 교실
말씀 나눔 모임	매월 셋째 주일	교육관 5번 교실
찬양예배	월 1회, 토요일	음대 강의실 217호
봉사자 기도 모임	주일 오후 12시45분	유아실

주일 예배 봉사위원

	12. 15	12. 22	12. 25
대 표 기 도	유미경 집사	김효중 집사	신임 남전도회장
성 경 봉 독	유미경 집사	김효중 집사	신임 청년회장
헌 금 위 원	김효중 집사	한명희 집사	신임 여전도회장
안 내 위 원	김남희 집사	김남희 집사	김남희 집사

환영 : 예배를 위해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.

교회소식

1. 대강절 -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준비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.
2. 성경 읽기 -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채우세요(겔22~40장)
3. 감사 - 말씀을 전해주시는 맹기현 목사께 감사 드립니다(빌레펠트에서 사역)
4. 담임목사 동정 - 세미나 참석 중입니다.
5. 성탄 축하예배(15일 주일예배) - 주일학교에서 성탄 발표회 합니다.
6. 성탄절 예배(25일, 수요일) - 성탄절 감사예배 드립니다(오후 2시)
7. 나눔의 시간 - 여전도회에서 섬겨주셨습니다. 감사 드립니다.

교우동정

생일	

지난주통계

주일헌금	128
십 일 조	545
감사헌금	552
구제헌금	20
합계(Euro)	1,245

기도제목

1. 육체적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해서
2. 새로 등록한 교우들이 교회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
3. 김선택, 장보경 협력선교사(성진, 예린, 주 허트번, 헝가리) 사역을 위하여
4. 전도, 선교, 구제에 힘쓰는 한민교회가 될 수 있도록

브레멘 한민교회

Bremen Han-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

“행복을 나누는 건강한 교회(삼하7:21~29)”



담임목사 이 상 호 (Sang Ho Rhee)

목사관 : Yperner Str. 7 28259 Bremen
 ☎ 0421/257 3831 | 0176-7242-4297(Mobile)
 E-Mail : josefrhee@hanmail.net

믿음의 부요를 보이고
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
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

교회 : Anna-Stiegler-Str. 124 28277 Bremen
 전차 (Tram) 4번 / 버스 (Bus) 22, 29, 51, 52번
 정거장(H) : Kattenturm-Mitte



http://www.brehanmin.de

주일 예배 Gottesdienst 2.Advent

*송	영 Chor	반주자
*기	원 Altargebet	정용현 안수집사
*찬	송 Gemeindelied 102장	다같이
*성서교독	Wechsellesung 교독문 116번	다같이
*신앙고백	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(새번역)	다같이
찬	송 Gemeindelied 438장	다같이
기	도 Gebet	유미영 집사
*성경봉독	Predigttext 막 4 : 10 - 20(신p58)	유미영 집사 (Markus 4:10-20)
설	교 Predigt 하나님 나라의 비밀	맹기현 목사
찬	송 Gemeindelied 440장	다같이
헌	금 Gemeindelied zur Kollekte 314장(1, 2절).....	유미경 집사
	교회소식 Information & Begrüßung(새 가족 환영).....	정용현 집사
*폐회찬송	Schlusslied 54장	다같이
*축	도 Segnungsgebet	맹기현 목사
*송	영 Chor	반주자

* 표는 일어서 주십시오(* Bitte erheben Sie sich)

성도의 교제 친교실

심판의 잣대

성장에는 수많은 사람의 다양한 일대기가 그려져 있습니다. 두드러진 업적을 남기고 간 위대한 인물들도 있고,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채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. 아브라함, 야곱, 요셉, 모세, 여호수아, 다윗, 느헤미야, 이사야, 예레미야 등 구약시대 인물과 베드로, 바울, 요한 등 신약시대 인물은 오늘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줍니다. 이런 인물들과 달리 별다른 업적을 남기지는 않았지만 성실한 자세로 인생을 보람되게 살다가 간 사람도 많습니다. 이들은 평범하고 소심한 현실에 매여 있는 우리에게 또 다른 위안과 기쁨을 줍니다. 실상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는 삶의 열매는 어떤 업적이냐 거룩한 공적으로 맺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매일 어떤 삶을 살았나? 입니다.

장차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면, 얼마나 큰 교회를 짓고 얼마나 자주 교회에 출석했느냐가 심판의 잣대는 될 수 없습니다. 심판의 날에 판단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인으로 살았으며, 깨끗한 인격자로 살았느냐? 일 것입니다. 인생의 진정한 열매는 삶 자체의 품위라는 것을 깨닫습니다. 이것을 베드로는 "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(벧후1:4)"이라고 말했습니다. 주님께서 몸소 걸어가신 그 길을 따르며 그분을 닮아갈 때, 우리 인생도 향기로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.

나의 친구를 위한 기도 / 김천일

* 빛은 다 갚을 수 있을지 모르나 우리가 받은 은혜는 영원히 갚지 못하다.

- Andrew Carnegie -